

우리나라의 위안화 무역결제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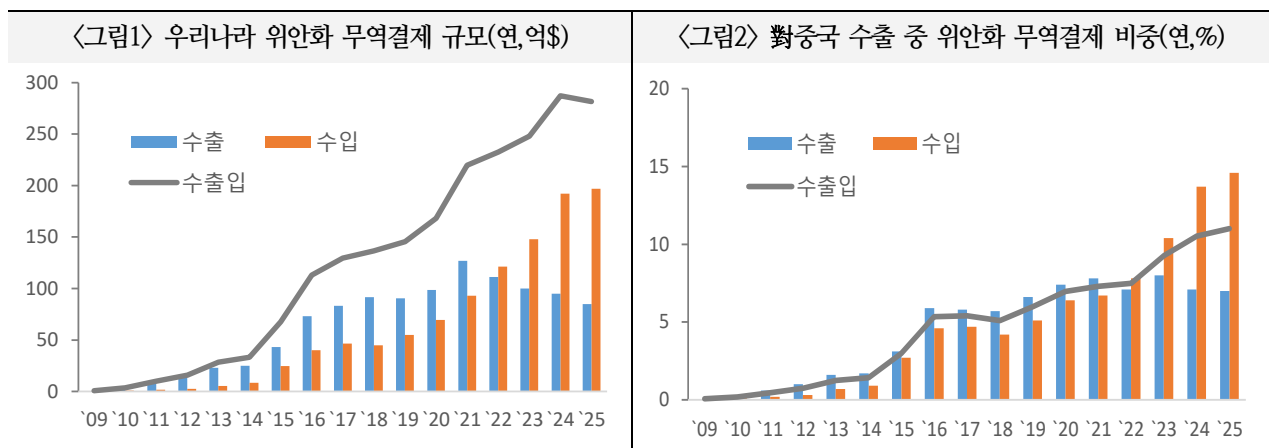
이치훈 세계경제분석실장(3705-6230)

김기봉 책임연구원(3705-6161)

- **[현황] 금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결제는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
 - 금년 상반기 對중국 무역이 3.3% 감소하였으나 위안화 결제는 141억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기록. 위안화 결제 비중은 작년 10.5%에서 11%로 상승
 - 과거에는 수출 결제 규모가 수입보다 3배가량 많았으나 '22년 수입이 수출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한 이후 금년에는 격차가 2.3배로 확대
- **[배경] 중국 정부가 위안화 대외 결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위안화의 활용(금융) 코스트가 낮아지고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로 위안화 사용 여지도 커진데 주로 기인**
 - (금융비용 측면)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대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한 결과 위안화-달러간 환가료율이 역전(CNY 3.7% < USD 4.4%)되면서 무역금융 비용이 축소
 - (무역구조 측면) 중국의 자국 수출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가공무역이 축소('05년 48.6%→'25년 18.4%)되어 자국내 달러화 보다 위안화 결제(수요) 유인이 증가
- **[전망] 향후 부동산 위축 등 중국경제의 불안이 위안화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결제와 활용 범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0년 우리나라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가 현재의 2배 정도인 550억달러 규모로 늘어나고, 활용 경로도 직접투자(FDI·ODI) 등으로 점진적으로 다변화될 가능성
- **[시사점] 우리나라는 국내 위안화 활용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 다만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
 -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내 위안화채권(판다본드) 발행은 전무하여 글로벌 기업의 발행 급증 트렌드와 대조
 - 영국의 경우 금융허브 정책 등으로 위안화 예금·대출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도 활발
 - 다만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의 대외 사용 확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국 경제와 정책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현황) 금년 상반기 대중국 무역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결제는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지난해 수준을 유지

- 금년 상반기 對중국 무역이 3.3% 감소(수출 4.6%↓, 수입 2.2%↓)하였으나 위안화 결제는 141억달러를 기록('24년 141억\$). 위안화 결제 비중은 작년 10.5%에서 11%로 상승
 - 수입결제 규모가 98.4억달러로 4.5% 증가하였고 비중도 작년 13.7%에서 14.6%로 상승<그림1,2>
 - 수출결제는 42.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하여 전체 對중국 수출 감소폭(4.6%)을 상회하면서 비중이 작년 전체 7.1%에서 7.0%로 하락<그림1,2>
- 과거에는 수출 결제 규모가 수입보다 3배가량 많았으나 '22년 수입이 수출을 근소한 차이로 추월한 이후 금년에는 격차가 2.3배로 확대<그림1>
 - 수출 결제는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하여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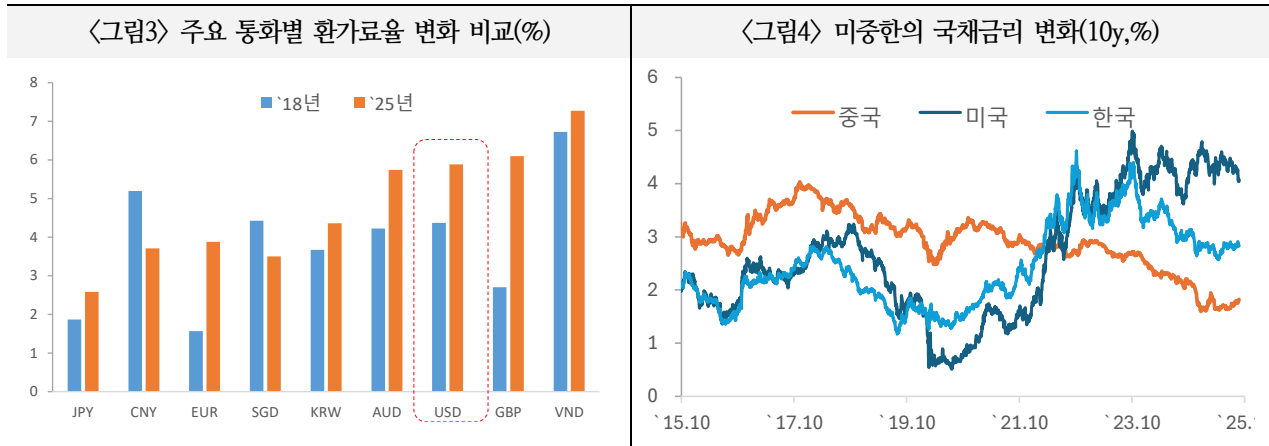


자료: WIND<그림 1,2>'25년은 상반기를 연간으로 환산

□ [배경] 중국 정부가 위안화 대외 결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위안화의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무역 금융 등에 유리해진데 주로 기이

- (금융비용 측면)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대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 한 결과 위안화-달러간 환가료율이 역전(CNY 3.7% < USD 4.4%)되어 조달 비용이 축소
 - 위안화 환가료율은 '18년 5.2%에서 '25.10월 3.7%로 하락한 반면 달러화는 4.4%에서 5.9%로 상승하여 연지급 무역결제의 금리 부담이 크게 축소<그림3>
 - 국채금리도 중국은 '20년 3.3%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1.8%로 미국 4.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25.10월기준)<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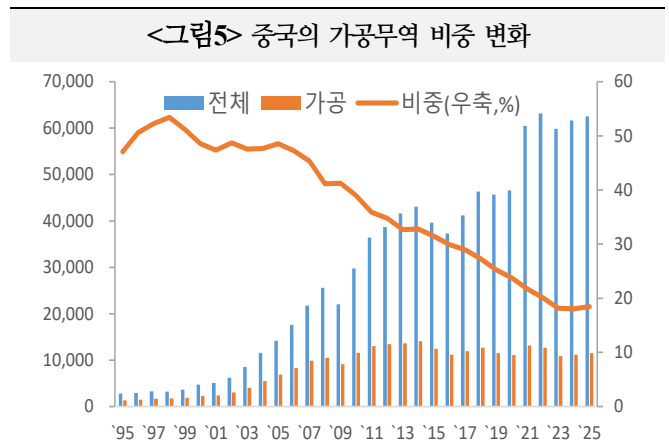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연준이 '24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였으나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그림4>



자료: Bloomberg

○ (무역구조 측면) 중국의 자국 수출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가공무역이 축소('05년 48.6%→'25년 18.4%)되어 자국내 달러화 보다 위안화 결제(수요) 유인이 확대<그림5>

- 참고로 과거에는 가공무역이 활성화 되어 달러화 수입과 수출 결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비중이 많았으나 현재는 자국내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안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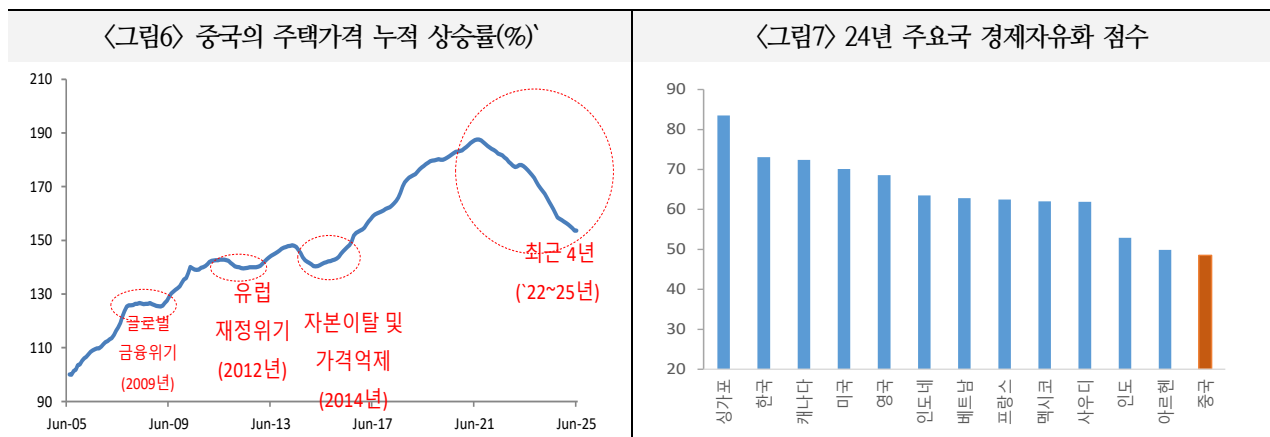
□ [전망] 향후 부동산 위축 등 중국경제의 불안이 위안화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활용 규모와 범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약 요인) 중국 자본시장 폐쇄성 등으로 역외 위안화의 운용수단이 제한된 측면이 있어 위안화 가치 상승 및 중국경제 안정 여부 등이 대외 보유의 주요 변수로 작용

- 미국의 기술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위축 등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이 위안화 보유를 제약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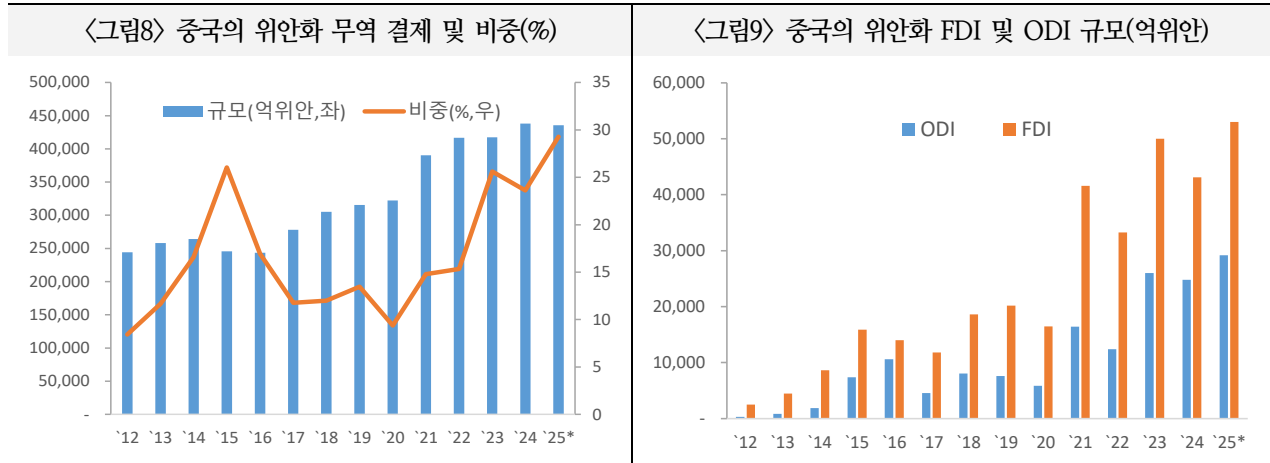
• 특히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현상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아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위안화 선호를 제약할 소지<그림6>

- 일부에서는 인구 고령화, 높은 가격 부담감, 공실확대 등의 과거 90년대 일본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제시
- 美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하는 중국의 경제자유화 지수는 기업규제, 자본통제 등으로 최근 3~4년간 꾸준히 하락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그림7>
- 위안화가 전세계 금년 9월 전세계 금융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역대 최대치인 4.7%를 기록한 후 '25년 2분기 3% 내외로 감소(달러: '16년말 65%→'25.2Q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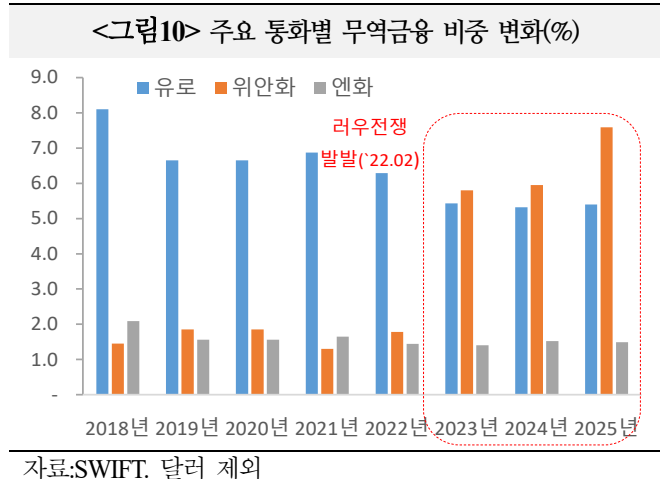
자료: <그림6> 2005년=100 기준 <그림7> Heritage Foundation CIEL

- **(확대요인)**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 국제화가 꾸준히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활용 경로도 기존 무역에서 직접투자(FDI·ODI) 등으로 점차 다변화될 전망
- 금년 중국의 위안화 결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23.6%에서 금년 1-9월 29.3%로 상승<그림8>
- 특히 최근 5년간 위안화를 활용한 직접투자가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급증하여 유출입 경로가 다양화. 실제로 무역결제 대비 직접투자 비율은 최근 4년 연속 50% 수준을 기록
 - 외국인의 對중국 직접투자(FDI)로 위안화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역외 위안화의 국내 환류 루트로 활용<그림9>
-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참여 은행수도 출범 당시인 '15년 50개(6개국)에서 금년 1,478개(119개국)으로 확산
 -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은행의 SWIFT 접근 제한의 풍선효과와 중국-중동간 협력 강화로 최근 2년간 133여개 은행이 신규 참여



자료: CEIC 상품무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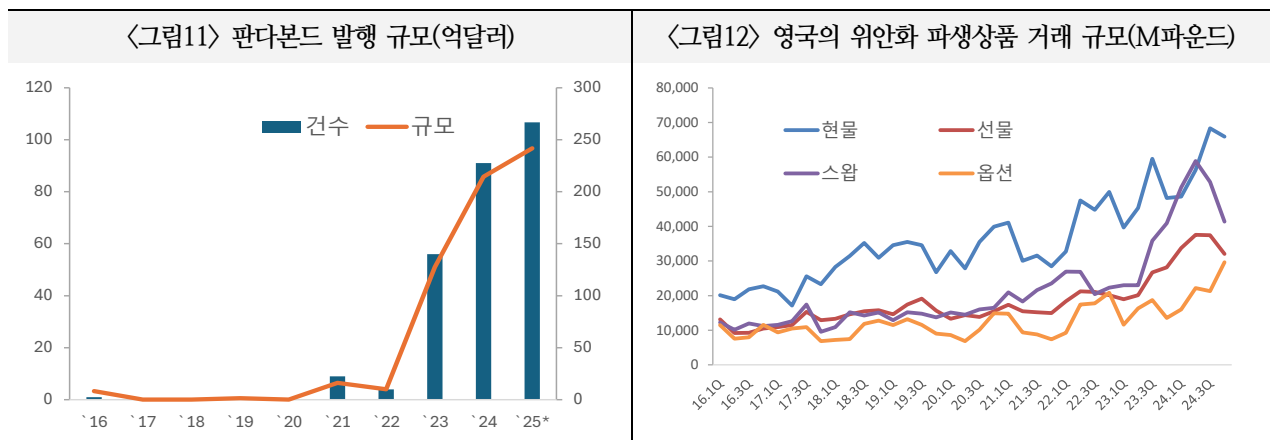
- 글로벌 무역금융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7.6%로 유로화 (5.4%)를 제치고 2위로 자리매김. '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급증<SWIFT, 그림10>
- 아직 달러화 비중이 81.4%로 절대적이나, '21년 87.1%에서 4년 연속 축소. 엔화도 같은 기간 1.7%에서 1.5%로 소폭 하락 <그림10>



- 우리나라의 경우, '30년경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직접투자 무역금융 등 여타부분에서의 활용도 서서히 확대될 전망
- 對중국 무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금년 10.3%에서 '30년 중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27.3%)의 2/3 수준인 20%로 상승할 경우, 위안화결제 규모는 182억달러에서 512억달러로 약 2배 증가(무역규모 불변 가정)
 - 향후 역외 위안화 허브인 홍콩과의 결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동남아국가 등 제3자 거래도 발생할 가능성
- 지난해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가 미국의 관세 및 우리나라의 FTA 허브국 지위 활용 등을 위해 급증하면서 1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신고기준>
 - 중국자금의 국내 채권 및 주식 투자도 미중대립의 풍선효과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

□ [시사점] 우리나라는 국내 위안화 활용 확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금융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

- 최근 우리나라는 對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급증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내 위안화채권(판다본드) 발행은 전무하여 글로벌 기업의 발행 급증 트렌드와 대조
 - 최근 3년 평균 전체 판다본드 발행이 4배 증가하여, 금년 1-9월 중 242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발행은 전무<그림11>.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은행)의 경우 중국내 자금 조달을 통한 비즈니스 추진을 검토
 - 이는 중국 정부가 △회계처리 △신용평가 △조달 자금의 해외 송금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개방 조치 확대에 주로 기인
 - 참고로 영국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 정책 등으로 위안화 예금·대출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도 활발<그림12,13, 붙임>
- 런던-홍콩간 증시의 상호투자(14년)에 이어 채권(17년 '23년) 투자도 허용한데 이어 금년 들어 추가로 금융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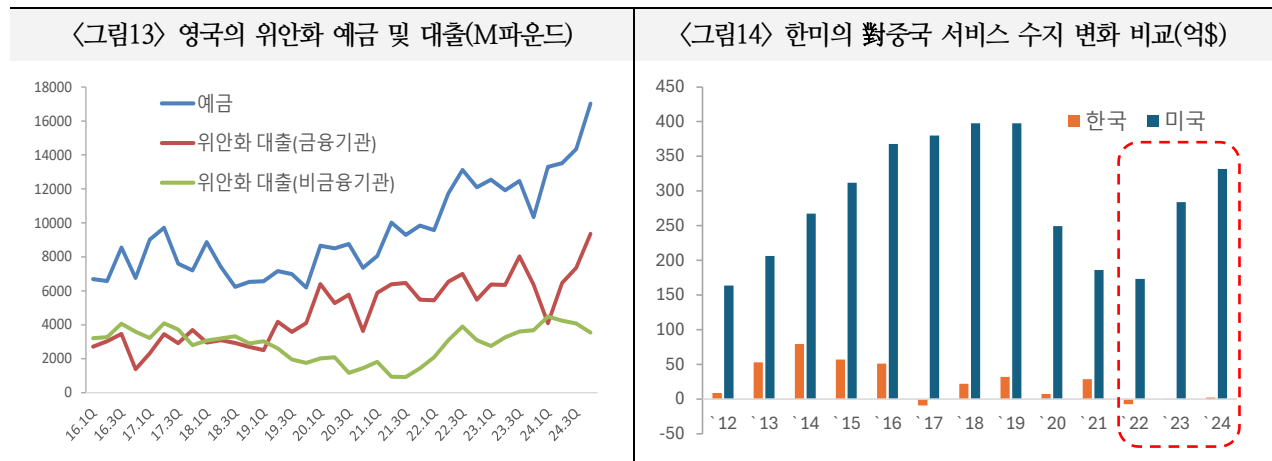


자료: 영란은행

-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금융서비스 FTA를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여 현재 고전하고 있는 상품 중심의 對중국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 현재 협상 중인 한중 금융 서비스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문화 경로를 통해 서비스 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의 낙수 효과로 활용할 필요
 - 참고로 우리나라의 對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21년이후 크게 감소하여 중국과 대립중인 미국의 수지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대조<그림14>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및 위안화의 대외 사용 확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국 경제와 정책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

– 차이나머니의 국내 채권 및 외환시장 영향이 이미 상당한 가운데 파급력이 더욱 증대



자료: Bloomberg, CEIC 등

<붙임1> 영국의 위안화 활용(단위 백만파운드)

	예금	대출		거래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현물	선물	스왑	옵션
2016년	6,757	1,386	3,598	22,690	10,476	11,184	11,535
2017년	7,199	3,691	2,809	23,288	12,886	9,567	6,862
2018년	6,530	2,704	2,902	30,951	15,777	15,101	12,793
2019년	6,194	4,100	1,758	26,731	15,636	13,707	8,990
2020년	7,350	3,636	1,449	39,903	15,479	16,481	14,920
2021년	9,845	5,486	1,436	28,457	14,929	23,549	7,375
2022년	12,105	5,484	3,094	49,938	20,125	22,290	20,840
2023년	10,339	6,355	3,688	48,194	28,135	40,885	13,525
2024년	17,018	9,353	3,537	65,910	32,013	41,370	29,635

자료: 영란은행